[GROUP BOOKIT 2기] 예솜단 '꼬마악어의 지갑' 활동후기

- 1. 진행일정: 2024년 9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~3시
- 2. 참여인원: 5명
- 3. 활동에 사용한 도서 및 활동지 & 교구 소개: 아이들 모두 "나는 세금내는 아이가 될래요" 책을 읽은 후 만났고, 모였을 때 유투브를 이용하여 "꼬마악어의 지갑" 책을 읽고 활동하였습니다. 활동지는 제공해주신 독후 활동지와 신용점수온도계를 사용하였습니다.
- 4. 활동방식 및 활동 내용: 만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여서 "나는 세금내는 아이 가 될래요" 책은 꼭 읽고 오게 하였고 "꼬마악어의 지갑"은 유투브에 책 읽어주는 영상이 있어서 같 이 시청하였습니다. 이번에는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보고나서 독후 활동지를 하여 아이들이 독후 활동지의 첫장의 물음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상상해도 좋고 아니면 내용을 알고 나서 아이들이 알게된 내용을 적게하였습니다. 독후활동지가 정말 단계별로 잘 되어 있어 아이들 이 한번 더 책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. 독후활동지의 문제들이 지도하는 입장에서 또, 아이들의 엄마로써 너무 좋았어요~ 글쓰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문장씩은 쓰게 하였고 아이들이 활동지 작성하면서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엄청나게 떠들었 습니다. 독후활동지 작성 후, 아이들과 신용온도계 만들기를 하였는데, 아이들이 3학년인데도 신용 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어요~ "신용카드" 혹은 "신의 용" 등, "신용카드니까 편리하다는 뜻 같아 요." 등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. 신용온도계를 만드는 건 1학년 친구가 더 좋아하였 고 3학년 친구들은 주변사람들의 신용점수매기기 활동지에 더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같았습니다. 제일 먼저 활동을 지도한 저의 신용을 매겨주었는데, 대부분의 친구들이 1000점을 주었고 한 친 구가 "잘하고 있을 것 같지만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999점을 주었다"고 적었어요. 그 활동을 하면서 엄마, 아빠, 같이 활동한 친구들의 신용점수도 적었는데.. 그 활동시간이 아이들 이 제일 활기찼던 시간이었어요^^
- 4. 새롭게 배우게 된 내용: 아이들이 오늘 새롭게 배운 내용은 많았던 것같습니다. 우선 "신용"이라는 단어의 뜻도 처음 알게 되었고, 신용점수라는 것이 있다는 것, 모든 어른들은 신용점수가 있다는 것, 신용점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, 신용점수에 따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다르다는 것 등등 아이들이 활동시간이 지날 수록 더더욱 활동에 빠져드는 수업이었어요^^
- 5. 참여학부모 및 아동소감: 재미있는 책을 읽고 글쓰기는 조금 힘들지만 더욱 책내용을 나의 머리와 마음에 '콕' 박아둘 수 있는 독후활동지를 하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만들기 활동과 작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활동까지... 이번 활동을 하고나서 이런식으로 경제에 대해 아이들이 접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나머지 활동들도 정말 기대가 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. 아이들이 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있게 도우미 역할만 한 저지만, 저까지도 아이들과함께 웃고 떠들며 활동했던 시간이었습니다. 아이들이 활동지 모퉁이에 적혀진 단어를 보고 '이게경제에요'라고 질문하였었어요. '경제'라는 단어가 어떻게 접하면 어려울텐데 우리아이들이 이렇게즐겁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게 기회가 닿아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.















